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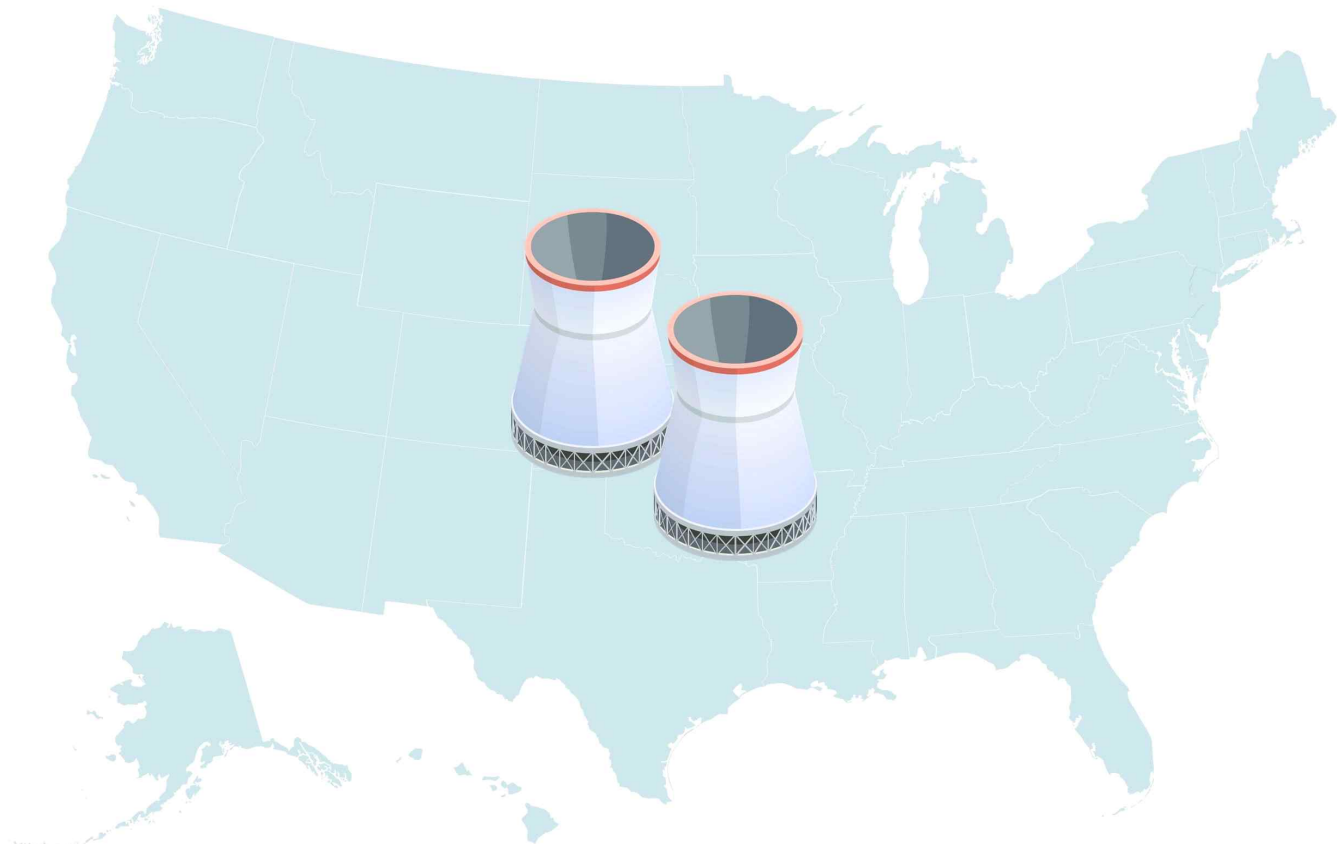


# 미국 빅 테크(Big Tech) 기업의 원자력 투자 협력 동향

2024. 11. 15.

발행처: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사업부 글로벌전략실

편집인: 남효온(책임연구원)





# 미국 빅 테크(Big Tech) 기업의 원자력 투자 협력 동향

미국 원자력 정책 동향 시리즈 (2024-16)

## 주요내용

- AI 붐과 함께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이 가속화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붐 이전에 세운 야심 찬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아마존(Amazon)과 같은 빅 테크 기업들은 원자력을 전력 공급원으로 고려하며 투자계획을 발표함
- 선진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경우 모듈화 설계로 경제성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용량 확장, 유연한 운영 등이 가능하여 재생에너지원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센터를 위한 청정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선진원자로 개발사와 대형 투자자인 빅 테크 기업 간의 협력은 선진원자로 개발의 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선진원자로의 경우 개발 중인 기술로 기술의 불확실성, 초도 호기의 경제성, 대중 수용성 등의 프로젝트 추진의 리스크들을 저감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민간 주도로 선진원자로를 개발하는 미국의 경우 과거의 원자력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일정 지연 및 비용 초과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큰 숙제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iSMR 및 선진원자로 기술을 조기에 실증하고, 경제성을 입증하는 경우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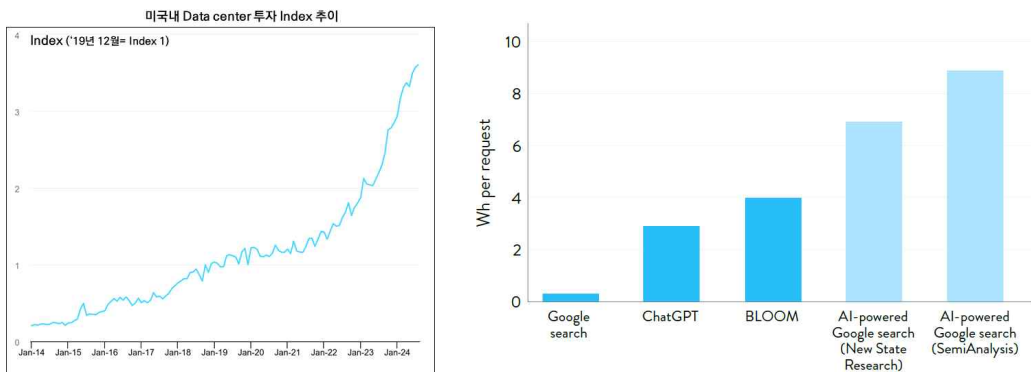
## 01. 개요

- 미국은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및 생성형 AI 등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구글(Google), 아마존(Amazon)과 같은 빅 테크 기업들의 주도로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이 빠르게 가속화 되고 있음.

- 2024년 3월 기준, 전 세계에는 약 10,655개의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그 중 절반인 5,381개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음

\* '21년 1년 기준, 전 세계에는 약 8,000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었으며, 그 중 약 1/3이 미국에 있었음

[그림 1] 미국 내 데이터 센터 투자 추이 (좌) 및 각 검색서비스 당 전력소요량(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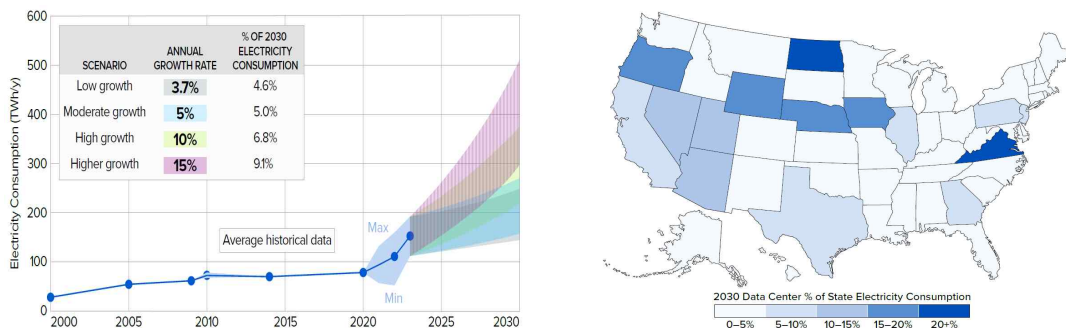
[출처: EIA, EPRI]

-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시장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 수요도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음.

-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미국 전력 소비량의 9%에 이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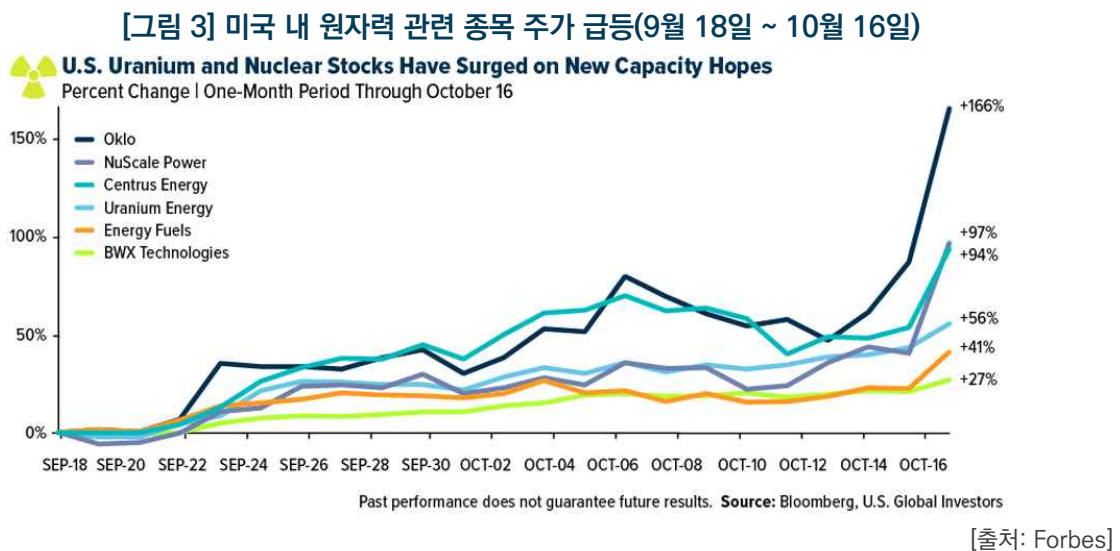
\* 맥킨지는 2030년까지 데이터 수요가 3배 이상 증가하여 발전량 수요가 80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

[그림 2] 2030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좌) 및 미국 주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 점유율 전망(우)



[출처: EPRI]

- 이처럼 AI 붐 이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AI 붐 이전에 세운 야심 찬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연방 정부 및 빅 테크 기업들의 청정 에너지인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아마존(Amazon)과 같은 여러 빅 테크 기업들의 원자력 투자 소식이 발표됨에 따라 원자력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함



- 본 고에서는 주요 빅 테크 기업의 원자력 투자 협력 현황 및 원자력 발전 선호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빅 테크 기업들의 원자력 투자 현상의 시사점 및 도전 과제를 정리하였음.

## 02. 빅 테크(Big Tech) 기업의 원자력 투자 현황

### ①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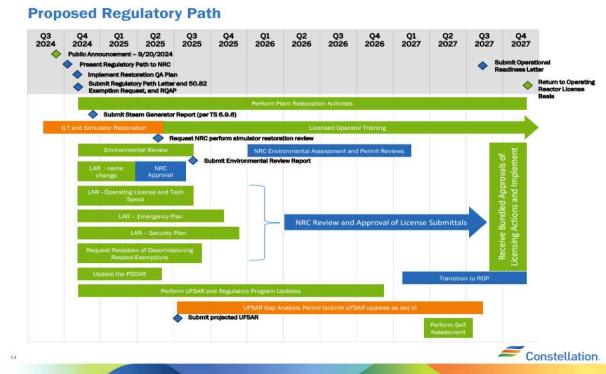
- **(Microsoft - Constellation)** 2024년 9월 20일 Microsoft는 컨스텔레이션(Constellation)이 소유한 펜실베이니아주 쓰리 마일 아일랜드(Three Mile Island)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호기(TMI-1)\*를 재가동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20년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 837 MWe 용량의 TMI-1은 경제성 저하로 2019년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TMI 2호기(TMI-2)는 1979년 3월 냉각재 상실로 인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운영을 중단하였음.

- Constellation은 2028년 원자로 재가동을 목표로 TMI-1의 터빈, 발전기, 주 전력 변압기, 냉각 및 제어 시스템 등을 복구하는 재가동 작업에 16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임.

- Microsoft는 Constellation과의 TMI-1 전력 구매 계약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일반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의 거의 두 배인 100 \$/MWh의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Constellation의 TMI-1 원자력 발전소(좌)와 재가동 인허가 계획(우)



[출처: Conste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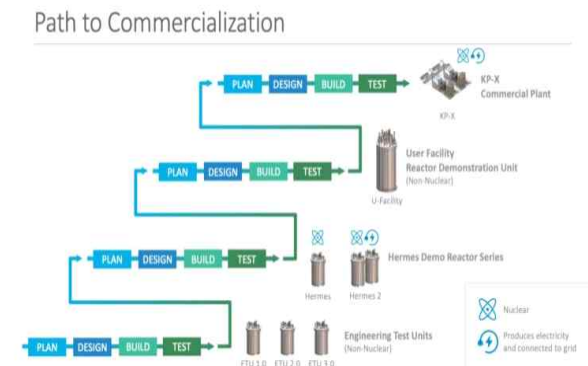
## 2 구글 Google

- (Google – Kairos Power) 2024년 10월 14일 Google은 카이로스 파워(Kairos Power)와 선진원자로\* 발전소 배치를 통한 전력 구매 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음을 발표함.

\* Kairos Power는 불소염 기반 용융염 원자로 KP-FHR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테네시주 Oak Ridge에서 35 MWth 규모의 비전력 실증 시설인 Hermes 건설을 시작하였음.

- Kairos Power는 2030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 모듈을 가동한 후 2035년까지 추가 원자로를 배치해 6~7개의 원자로 모듈에서 최대 500 MWe의 전력을 Google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나 계약의 세부 사항이나 원자로 건설 부지 등은 밝혀진 바 없음.

[그림 5] Kairos Power의 Hermes 실증시설(좌)과 단계적 원자로 개발/실증 전략 (우)



[출처: Kairos Power]

### ③ 아마존

- (Amazon - X-energy) 2024년 10월 16일, Amazon은 기후서약기금(Climature Pledge Fund)의 투자금을 포함\* 약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선진원자로 개발사인 X-Energy Reactor Company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Citadel의 설립자 겸 CEO인 Ken Griffin, Ares Management Corporation, NGP 에너지 캐피탈,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가 Amazon의 “기후서약기금”과 함께 투자를 결정함.

- (지분 투자) Amazon은 X-energy 지분 투자를 통해 Xe-100 원자로 설계 및 인허가, 테네시주 Oak Ridge 소재의 TRISO-X 연료 제조 시설 완공을 지원할 계획임.
- (Xe-100 건설) Amazon과 X-energy는 궁극적으로 2039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5 GWe 이상의 원자로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사는 워싱턴주 중부의 지역 전력회사인 에너지 노스웨스트(Energy Northwest)와 협력하여 Xe-100 4기\*(320 MWe)을 우선 건설한 후 단계적으로 12기(960 MWe)까지 용량을 확장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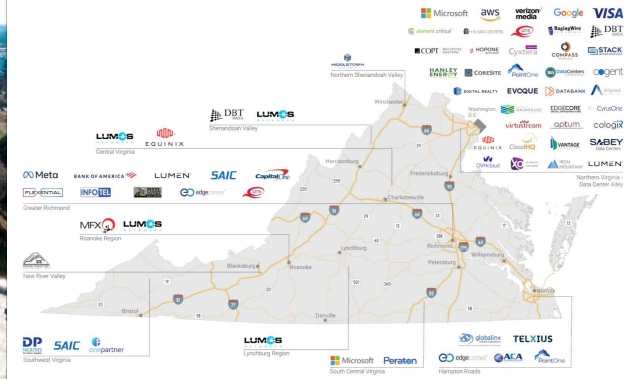
\* 상기 건설과 별개로 X-energy는 에너지부(DOE)의 선진원자로 실증 프로그램(ARDP)의 지원으로 Xe-100 4개 모듈(320 MWe)을 텍사스주 Dow 정유 플랜트 부지에 건설을 추진 중

- (Amazon - 도미니언 에너지) Amazon은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와 버지니아주 노스 애나(North Anna) 원전 인근에 SMR 배치를 모색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버지니아주에는 전 세계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35% 이상이 위치하고 있으며, Dominion Energy는 버지니아 지역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Amazon-Dominion Energy 간의 MOU는 SMR 개발 및 자금 조달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고객과 투자자의 비용 및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버지니아 지역에 최소 300 MWe의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함.
- Dominion Energy는 지난 7월 선진원자로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North Anna 원전에 SMR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표하였고, Amazon이 지분 투자를 결정한 X-energy도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 중 하나로 알려짐.

- (Talen 데이터 센터 구매) 2024년 3월 Amazon은 펜실베이니아주 Susquehanna 원전에서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960 MWe 규모의 Talen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6억5천만 달러에 인수하고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함. 다만, 최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송전비용 부담 전가 등을 이유로 직접 공급 전력을 300 MWe로 제한함에 따라 후속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6] 버지니아 소재 AWS 데이터 센터(좌)와 버지니아의 주요 데이터 센터(우)



[출처: 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 Amazon Web Service]

#### 4 기타

- (오라클) 2024년 9월 9일 오라클(Oracle)의 회장 겸 공동 설립자인 Larry Ellison은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3개의 소형모듈원자로(SMR)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있다고 발표함.
  - Oracle이 고려하고 있는 부지에 이미 3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데이터 센터의 위치와 원자력 회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오픈AI-Oklo) ChatGPT를 개발한 OpenAI의 CEO인 Sam Altman은 선진원자로 개발사인 Oklo의 주요 투자자 및 회장으로 선진원자로 개발 및 배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Oklo는 2027년 Aurora 원자로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Sam Altman은 2015년부터 Oklo의 주요 투자자로 활동해 왔으며, 2024년 5월 기업인수목적회사 AltC Acquisition Corp와 합병을 통해 주식을 상장하였음.

[그림 7] 오픈 AI의 샘 알트먼과 (좌)와 Oklo의 Aurora 원자로



By leveraging the energy density of fission, Oklo's Aurora powerhouses have immense environmental benefits

**Lowest GHG Emissions**  
Nuclear power has the lowest lifecycle (GHG) emissions profile of any energy technology, including solar and onshore wind

**Lowest Materials Use**  
Nuclear power has the lowest materials intensity of any energy technology

**Lowest Land Use**  
Nuclear power uses the least amount of land of any energy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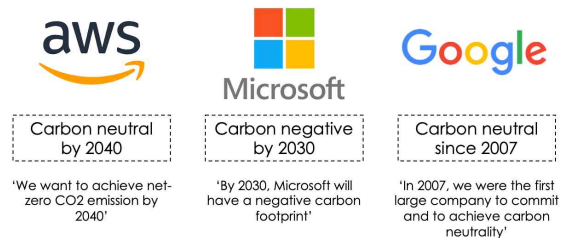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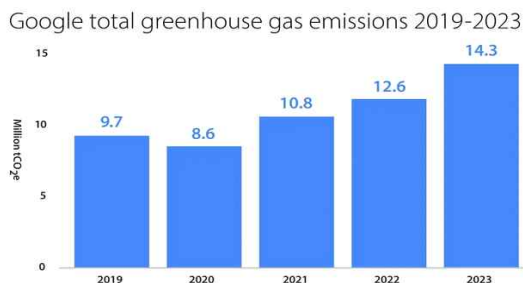
Aurora powerhouse (15MW) < 2-acre land footprint

[출처: 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 Amazon Web Service]

### 03. 빅 테크 기업의 원자력 선호 요인 분석

- **(재생에너지만으로 기후 목표 달성의 어려움)** 빅 테크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기후 목표를 수립하고 자사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해 왔으나, Microsoft, Google, Amazon은 2024년 연례 환경 보고서를 통해 AI 붐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및 전력 수요 급증으로 재생에너지 활용만으로는 장기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힘.
- Microsoft는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 2020년 이후 탄소 배출량이 약 3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Google은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3% 늘었다고 밝혔으며, Amazon은 2023년 전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3% 줄였지만 향후 데이터 센터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경우 당초 수립된 기후변화 목표 달성이 어려움을 인정함.

[그림 8]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좌)과 주요 빅테크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우)



[출처: Statista, <https://www.carbone4.com/en/analysis-carbon-footprint-cloud>]

- **(24/7 안정적인 청정 전력 공급원)** 빅 테크 기업들은 급증하는 AI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에 상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빅 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자체적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선호해 왔으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를 24/7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음.
- 특히 선진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경우 모듈화 설계로 24/7 원자로 가동 및 전력 공급에 유리하고, 필요시 모듈을 추가하여 용량을 확장할 수 있으며, 탄력 운전으로 재생에너지원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04. 빅 테크 기업 원자력 활용의 시사점 및 도전 과제

- 빅 테크 기업들은 가동이 중단된 원자로의 재가동 및 선진원자로 배치를 통해 당장의 전력 공급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청정 전력원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원자력)**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미국 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만큼의 규모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 무탄소 전력인 원자력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선진원자로 개발의 활로)** 선진원자로 개발사들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외 안정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형 투자자인 빅 테크 기업과의 협력은 선진원자로 개발의 활로가 될 전망이다.
- 직접적인 자금 지원 외에도 전력구매계약(PPA) 또한 사업의 재정 리스크를 줄여 신규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빅 테크 기업들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개발 중인 기술로 아직 기술의 불확실성이 있으며, 기술의 개발, 실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리스크를 저감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경제성 확보)**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경우 기존의 대형 원자로 대비 낮은 자본 비용, 더 짧은 구축 시간을 가진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도 호기 건설에는 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또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대형 원자로 대비 경제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저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수용성 극복)** 비록 과거에 비해 원자력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지만 원자력 사고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원자력 선호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해가 된다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극복해야 할 부분임.
- **(리스크 완화)** 비록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분야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빅 테크 기업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일 뿐 선진원자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리스크를 모두 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유치 노력과 함께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05. 관찰 및 평가

- AI 붐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가속화되며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그들이 목표하는 야심 찬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Microsoft는 TMI-1 원자로의 재가동과 20년간 전력 구매 계약을, Google은 Kairos Power가 개발 중인 선진원자로로부터 2035년까지 최대 500 MWe의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mazon은 X-energy에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Xe-100 원자로 설계,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Xe-100 4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청정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선진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경우 모듈화 설계로 24/7 원자로 가동 및 전력 공급에 유리하고, 용량 확장이 가능하며, 재생에너지원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빅 테크 기업들은 가동이 중단된 원자로의 재가동 및 선진원자로 배치를 통해 당장의 전력 공급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청정 전력원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진원자로 개발사와 대형 투자자인 빅 테크 기업 간의 협력은 선진원자로 개발의 활로가 될 전망이다.
- 선진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개발 중인 기술로 아직 기술의 불확실성이 있으며, 기술의 개발, 실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 상용화를 위한 리스크 저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극복하는 것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음.
- Amazon이 구매한 Talen 데이터 센터와 같이 기존 원전에서 전력을 직접 공급 받는 경우에는 기존 전력망 입장에서는 발전원이 상실되는 것과 같아서 그리드 안정성 저해, 송전 비용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Microsoft처럼 TMI-1의 전력을 전력망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거나, 신규 원자로를 건설 후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구매하는 방안이 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 민간 주도로 선진원자로를 개발하는 미국의 경우 초기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프로젝트 동안 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과거의 원자력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일정 지연 및 비용 초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바, 정해진 예산으로 적기에 사업을 성공시키는 첫 사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문헌

---

- 1) EPRI. (2024). EPRI Study: Data Centers Could Consume up to 9% of U.S. Electricity Generation by 2030. Retrieved from <https://www.epri.com/about/media-resources/press-release/q5vU86fr8TKxATfX8IHf1U48Vw4r1DZF>
- 2) Constellation, (2024). Constellation to Launch Crane Clean Energy Center, Restoring Jobs and Carbon-Free Power to The Grid. Retrieved from <https://www.constellationenergy.com/newsroom/2024/Constellation-to-Launch-Crane-Clean-Energy-Center-Restoring-Jobs-and-Carbon-Free-Power-to-The-Grid.html>
- 3) Reuters. (2024). Three Mile Island nuclear plant gears up for Big Tech reboot.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three-mile-island-nuclear-plant-gears-up-big-tech-reboot-2024-10-22/>
- 4) The New York Times. (2024). Three Mile Island Plans to Reopen as Demand for Nuclear Power Grow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4/09/20/climate/three-mile-island-reopening.html>
- 5) State Impact Pennsylvania. (2024). Three Mile Island owner lays out reopening timeline in public hearing. Retrieved from <https://stateimpact.npr.org/pennsylvania/2024/10/25/three-mile-island-owner-lays-out-reopening-timeline-in-public-hearing/>
- 6) Office of Nuclear Energy, DOE. (2022). 5 Facts to Know About Three Mile Island. Retrieved from <https://www.energy.gov/ne/articles/5-facts-know-about-three-mile-island>
- 7) Reuters. (2024). Google to buy power for AI needs from small modular nuclear reactor company Kairos.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google-buy-power-small-modular-nuclear-reactor-company-kairos-ai-needs-2024-10-14/>
- 8) Kairos Power. (2024). Google and Kairos Power Partner to Deploy 500 MW of Clean Electricity Generation. Retrieved from [https://kairospower.com/external\\_updates/google-and-kairos-power-partner-to-deploy-500-mw-of-clean-electricity-generation/](https://kairospower.com/external_updates/google-and-kairos-power-partner-to-deploy-500-mw-of-clean-electricity-generation/)
- 9) Power Magazine. (2024). Google Bets Big on Nuclear: Inks Deal with Kairos Power for 500-MW SMR Fleet to Power Data Centers. Retrieved from <https://www.powermag.com/google-bets-big-on-nuclear-inks-deal-with-kairos-power-for-500-mw-smr-fleet-to-power-data-centers/>
- 10) X-energy. (2024). Amazon Invests in X-energy to Support Advanced Small Modular Nuclear Reactors and Expand Carbon-Free Power. Retrieved from <https://x-energy.com/media/news-releases/amazon-invests-in-x-energy-to-support-advanced-small-modular-nuclear-reactors-and-expand-carbon-free-power>

- 11) Amazon. (2024). Amazon signs agreements for innovative nuclear energy projects to address growing energy demands. Retrieved from <https://www.aboutamazon.com/news/sustainability/amazon-nuclear-small-modular-reactor-net-carbon-zero>
- 12) CNBC. (2024). Amazon goes nuclear, to invest more than \$500 million to develop small modular reactors. Retrieved from <https://www.cnbc.com/2024/10/16/amazon-goes-nuclear-investing-more-than-500-million-to-develop-small-module-reactors.html>
- 13) Dominion Energy. (2024). Dominion Energy and Amazon to explore advancement of Small Modular Reactor (SMR) nuclear development in Virginia. Retrieved from <https://news.dominionenergy.com/2024-10-16-Dominion-Energy-and-Amazon-to-explore-advancement-of-Small-Modular-Reactor-SMR-nuclear-development-in-Virginia,1>
- 14) 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2024). Data Centers. Retrieved from <https://www.vedp.org/industry/data-centers>
- 15) CNBC. (2024). Oracle is designing a data center that would be powered by three small nuclear reactors. (2024). Data Centers. Retrieved from <https://www.cnbc.com/2024/09/10/oracle-is-designing-a-data-center-that-would-be-powered-by-three-small-nuclear-reactors.html?msocid=3d2981876a7e6c05347791fc6e7e6ac6>
- 16) Forbes. (2024). Why Tech Giants Are Betting Big On Nuclear Power. Retrieved from <https://www.forbes.com/sites/greatspeculations/2024/10/21/why-tech-giants-are-betting-big-on-nuclear-power/>
- 17)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4). Can U.S. Tech Giants Deliver on the Promise of Nuclear Power?. Retrieved from <https://www.cfr.org/expert-brief/can-us-tech-giants-deliver-promise-nuclear-power>
- 18) CNBC. (2024). Why Big Tech is turning to nuclear to power its energy-intensive AI ambitions. Retrieved from <https://www.cnbc.com/2024/10/15/big-tech-turns-to-nuclear-energy-to-fuel-power-intensive-ai-ambitions.html?msocid=3d2981876a7e6c05347791fc6e7e6ac6>